

# 3장: 배열, 구조체, 포인터

- 목차
  - 1. 배열
  - 2. 구조체
  - 3. 포인터



#### 1. 배열이란?

- 같은 형의 변수를 여러 개 만드는 경우에 사용
- int A0, A1, A2, A3, ...,A9;  $\rightarrow$  int A[10];



- 반복 코드 등에서 배열을 사용하면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
- 예) 최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: 만약 배열이 없었다면?



#### 배열 ADT

- 배열: <인덱스, 요소> 쌍의 집합
- 인덱스가 주어지면 해당되는 요소가 대응되는 구조

#### 배열 ADT

객체: <인덱스, 요소> 쌍의 집합

연산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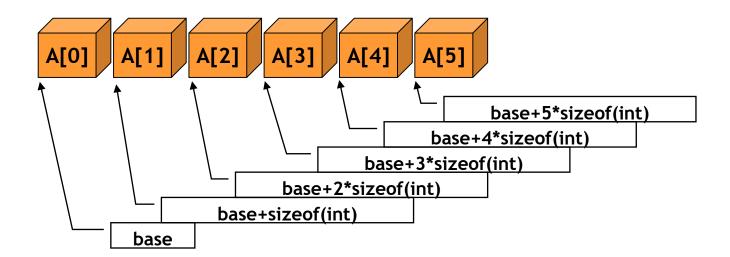
- create(n) ::= n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의 생성.
- retrieve(A, i) ::= 배열 A의 i번째 요소 반환.
- store(A, i, item) ::= 배열 A의 i번째 위치에 item 저장.





## 1차원 배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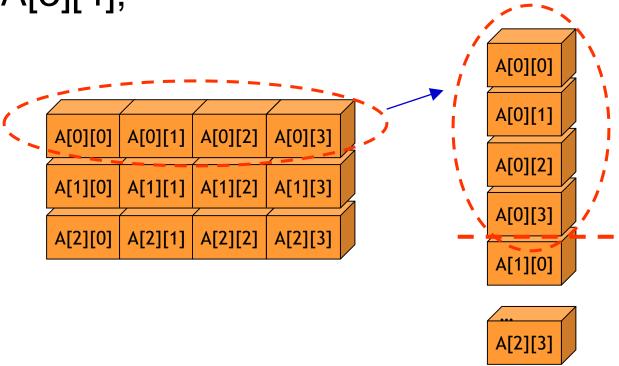
int A[6];





## 2차원 배열

int A[3][4];



실제 메모리안에서의 위치



#### 배열의 응용: 다항식

• 다항식의 일반적인 형태

$$p(x) = a_n x^n + a_{n-1} x^{n-1} + \dots + a_1 x + a_0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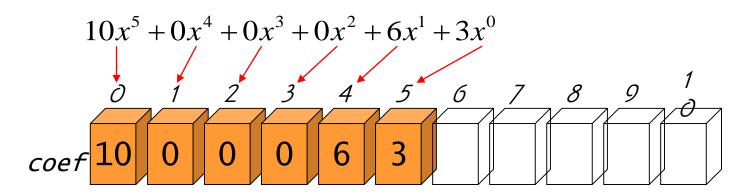
 프로그램에서 다항식을 처리하려면 다항식을 위한 자료구조가 필요-> 어떤 자료구조를 사용해야 다항식의 덧셈, 뺄셈,곱셈, 나눗셈 연산을 할때 편리하고 효율적일까?

- 배열을 사용한 2가지 방법
  - 다항식의 모든 항을 배열에 저장
  - 다항식의 0이 아닌 항만을 배열에 저장



#### 다항식 표현 방법 #1

- 모든 차수에 대한 계수값을 배열로 저장
- 하나의 다항식을 하나의 배열로 표현



```
typedef struct {
     int degree;
     float coef[MAX_DEGREE];
} polynomial;
polynomial a = { 5, {10, 0, 0, 0, 6, 3} };
```



## 다항식 표현 방법 #1(계속)

- 장점: 다항식의 각종 연산이 간단해짐
- 단점: 대부분의 항의 계수가 0이면 공간의 낭비가 심함.
- 예) 다항식의 덧셈 연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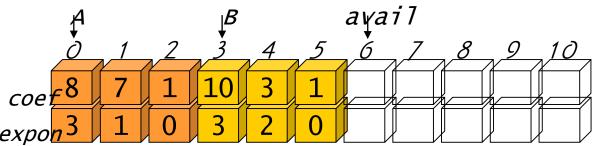


#### 다항식 표현 방법 #2

- 다항식에서 0이 아닌 항만을 배열에 저장
- (계수, 차수) 형식으로 배열에 저장
  - (예) 10x<sup>5</sup>+6x+3 -> ((10,5), (6,1), (3,0))

```
struct {
     float coef;
     int expon;
} terms[MAX_TERMS]={ {10,5}, {6,1}, {3,0} };
```

• 하나의 배열로 여러 개의 다항식을 나타낼 수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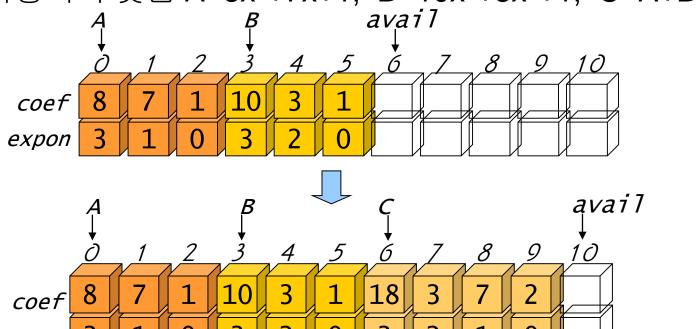


# 다항식 표현 방법 #2(계속)

• 장점: 메모리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

expon

- 단점: 다항식의 연산들이 복잡해진다(프로그램 3.3 참조).
- (예) 다항식의 덧셈 A=8x³+7x+1, B=10x³+3x²+1, C=A+B





## 다항식 표현 방법 #2(계속)

```
//C = A + B
void poly_add2(int As, int Ae, int Bs, int Be, int *Cs, int *Ce)
           float tempcoef;
           *Cs = avail;
           while( As <= Ae && Bs <= Be )
            switch(compare(terms[As].expon,terms[Bs].expon)){
              case '>': // A의 차수 > B의 차수
                       attach(terms[As].coef, terms[As].expon);
                       As++;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eak;
              case '=': // A의 차수 == B의 차수
                       tempcoef = terms[As].coef + terms[Bs].coef;
                       if( tempcoef )
                        attach(tempcoef,terms[As].expon);
                       As++; Bs++;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eak;
              case '<': // A의 차수 < B의 차수
                       attach(terms[Bs].coef, terms[Bs].expon);
                       Bs++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eak;
           // A의 나머지 항들을 이동함
           for(;As<=Ae;As++)
                       attach(terms[As].coef, terms[As].expon);
           // B의 나머지 항들을 이동학
           for(;Bs<=Be;Bs++)
                       attach(terms[Bs].coef, terms[Bs].expon);
           *Ce = avail -1;
```



## 희소행렬 (Sparse matrix)

- 배열을 이용하여 행렬(matrix)를 표현하는 2가지 방법
- (1) 2차원 배열을 이용하여 배열의 전체 요소를 저장하는 방법
- (2) 0이 아닌 요소들만 저장하는 방법
- 희소행렬: 대부분의 항들이 0인 배열

$$A = \begin{bmatrix} 2 & 3 & 0 \\ 8 & 9 & 1 \\ 7 & 0 & 5 \end{bmatrix} \quad B = \begin{bmatrix} 0 & 0 & 0 & 7 & 0 & 0 \\ 9 & 0 & 0 & 0 & 0 & 8 \\ 0 & 0 & 0 & 0 & 0 & 0 \\ 6 & 5 & 0 & 0 & 0 & 0 \\ 0 & 0 & 0 & 0 & 0 & 1 \\ 0 & 0 & 2 & 0 & 0 & 0 \end{bmatrix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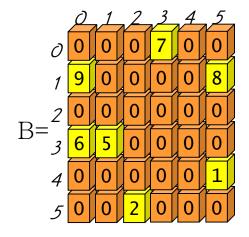


#### 희소행렬 표현방법 #1

- 2차원 배열을 이용하여 배열의 전체 요소를 저장하는 방법
- 장점: 행렬의 연산들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.
- 단점: 대부분의 항들이 0인 희소 행렬의 경우 많은 메모리 공간 낭비

$$A = \begin{bmatrix} 2 & 3 & 0 \\ 8 & 9 & 1 \\ 7 & 0 & 5 \end{bmatrix} \quad B = \begin{bmatrix} 0 & 0 & 0 & 7 & 0 & 0 \\ 9 & 0 & 0 & 0 & 0 & 8 \\ 0 & 0 & 0 & 0 & 0 & 0 \\ 6 & 5 & 0 & 0 & 0 & 0 \\ 0 & 0 & 0 & 0 & 0 & 1 \\ 0 & 0 & 2 & 0 & 0 & 0 \end{bmatrix} \quad A = \begin{bmatrix} 0 \\ A = \begin{bmatrix} 1 \\ 1 \end{bmatrix} \end{bmatrix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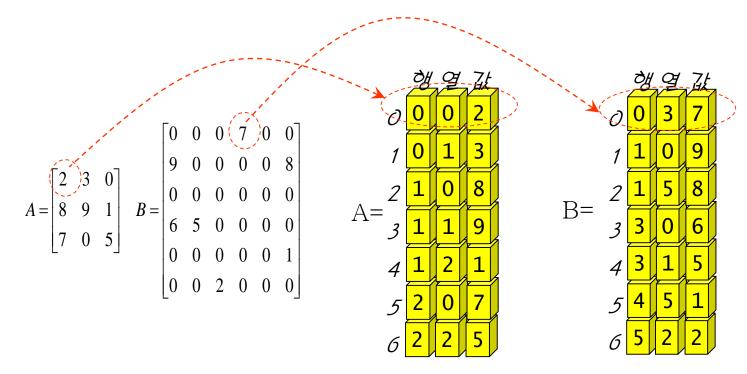
$$A = \begin{bmatrix} 0 & 1 & 2 \\ 2 & 3 & 0 \\ 1 & 8 & 9 & 1 \\ 2 & 7 & 0 & 5 \end{bmatrix}$$





#### 희소행렬 표현방법 #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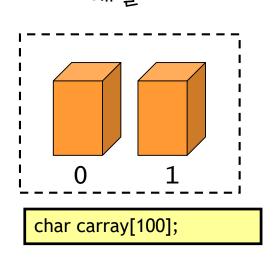
- 0이 아닌 요소들만 저장하는 방법
- 장점: 희소 행렬의 경우, 메모리 공간의 절약
- 단점: 각종 행렬 연산들의 구현이 복잡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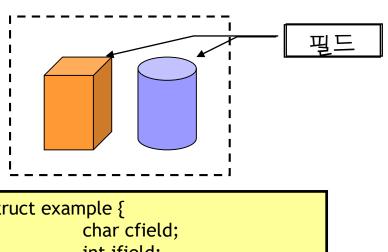




#### 2. 구조체란?

- 구조체(structure): 타입이 다른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방법
- 배열(array): 타입이 같은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 <sub>배열</sub> 구조체







#### 구조체의 사용예

• 구조체의 선언과 구조체 변수의 생성

```
struct person {char name[10];// 문자배열로 된 이름int age;// 나이를 나타내는 정수값float height;// 키를 나타내는 실수값};// 구조체 변수 선언
```

typedef을 이용한 구조체의 선언과 구조체 변수의 생성



#### 구조체의 대입과 비교 연산

• 구조체 변수의 대입: 가능

• 구조체 변수끼리의 비교: 불가능



#### 자체참조 구조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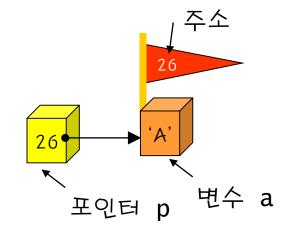
- 자체 참조 구조체(self-referential structure): 필드중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구조체
- 연결 리스트나 트리에 많이 등장



# 3. 포인터(Pointer)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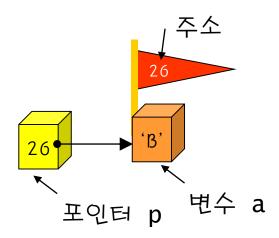
포인터: 다른 변수의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

```
char a='A';
char *p;
p = &a;
```



• 포인터가 가리키는 내용의 변경: \* 연산자 사용

```
*p= 'B';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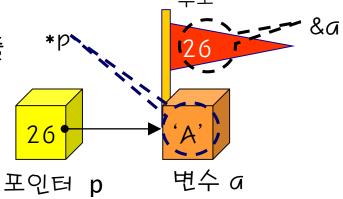




#### 포인터와 관련된 연산자

• & 연산자: 변수의 주소를 추출

\* 연산자: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추출



```
p // 포인터

*p //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

*p++ //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온 다음, 포인터를 한칸 증가한다.

*p-- //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온 다음, 포인터를 한칸 감소한다.

(*p)++ //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증가시킨다.
```

```
int a; // 정수 변수 선언
int *p; // 정수 포인터 선언
int **pp; // 정수 포인터의 포인터 선언
p = &a; // 변수 a와 포인터 p를 연결
pp = &p; // 포인터 p와 포인터의 포인터 pp를 연결
```



#### 다양한 포인터

• 포인터의 종류

```
void *p; // p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포인터 int *pi; // pi는 정수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float *pf; // pf는 실수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char *pc; // pc는 문자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int **pp; // pp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struct test *ps; // ps는 test 타임의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void (*f)(int); // f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
```

 포인터의 형변환: 필요할 때마다 형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.

```
void *p;
pi=(int *) p;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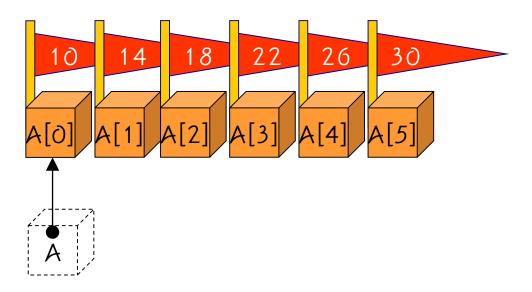
#### 함수의 파라미터로서의 포인터

 함수안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포인터를 이용하여 외부 변수의 값 변경 가능



#### 배열과 포인터

• 배열의 이름: 사실상의 포인터와 같은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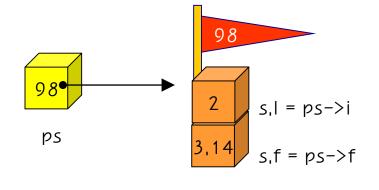


• 컴파일러가 배열의 이름을 배열의 첫번째 주소로 대치



#### 구조체의 포인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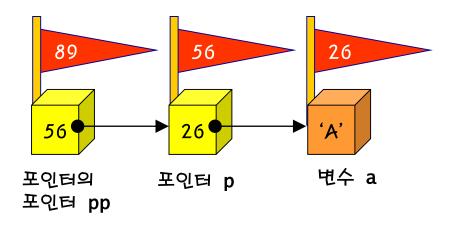
• 구조체의 요소에 접근하는 연산자: ->



S



### 포인터의 포인터



```
      int a;
      // 정수 변수 변수 선언

      int *p;
      // 정수 포인터 선언

      int **pp;
      // 정수 포인터의 포인터 선언

      p = &a;
      // 변수 a와 포인터 p를 연결

      pp = &p;
      // 포인터 p와 포인터의 포인터 pp를 연결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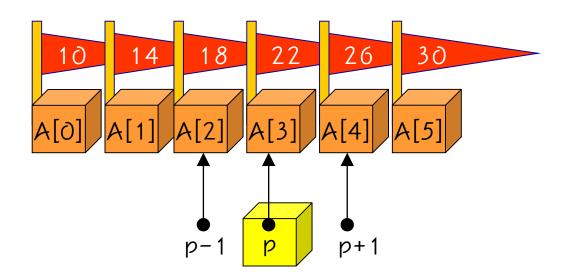
#### 포인터 연산

 포인터에 대한 사칙연산: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단위로 계산된다.

```
      p
      // 포인터

      p+1
      //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객체의 바로 뒤 객체

      p-1
      //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객체의 바로 앞 객체
```





#### 포인터 사용시 주의할 점

- 포인터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을 때는 NULL로 설정
   int \*pi=NULL;
- 초기화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 금지

• 포인터 타입간의 변환시에는 명시적인 타입 변환 사용

```
int *pi;
float *pf;
pf = (float *)pi;
```



#### 동적 메모리 할당

-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할당 받는 방법
  - 정적 메모리
  - 동적 메모리 할당
- 정적 메모리 할당
  - 메모리의 크기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결정
  - 프로그램의 수행 도중에 그 크기가 변경될 수는 없다.
  - 만약 처음에 결정된 크기보다 더 큰 입력이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못할 것이고 더 작은 입력이 들어온다면 남은 메모리 공간은 낭비될 것이다.
  - (예) 변수나 배열의 선언
  - int buffer[100]; char name[] = "data structure";
- 동적 메모리 할당
  - 프로그램의 실행 도중에 메모리를 할당 받는 것
  - 필요한 만큼만 할당을 받고 또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반납
  - 메모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가능





#### 동적 메모리 할당

• 전형적인 동적 메모리 할당 코드

• 동적 메모리 할당 관련 라이브러리 함수

```
    malloc(size) // 메모리 할당
    free(ptr) // 메모리 할당 해제
    sizeof(var) // 변수나 타입의 크기 반환(바이트 단위)
```



#### 동적 메모리 할당 라이브러리

- malloc(int size)
  - size 바이트 만큼의 메모리 블록을 할당

```
(char *)malloc(100); /* 100 바이트로 50개의 정수를 저장 */
(int *)malloc(sizeof(int));/* 정수 1개를 저장할 메모리 확보*/
(struct Book *)malloc(sizeof(struct Book))/* 하나의 구조체 생성 */
```

- free(void ptr)
  - ptr이 가리키는 할당된 메모리 블록을 해제
- sizeof 키워드
  - 변수나 타입의 크기 반환(바이트 단위)

```
size_t i = sizeof(int);
struct AlignDepends {
   char c;
   int i;
};
size_t size = sizeof(struct AlignDepends);
int array[] = { 1, 2, 3, 4, 5 };
size_t sizearr = sizeof(array) / sizeof(array[0]);
// 20/4=5
```



## 동적 메모리 할당 예제

```
struct Example {
          int number;
          char name[10];
void main()
          struct Example *p;
          p=(struct Example *)malloc(2*sizeof(struct Example));
          if(p==NULL){
           fprintf(stderr, "can't allocate memory\n");
           exit(1);
          p->number=1;
          strcpy(p->name,"Park");
          (p+1)->number=2;
          strcpy((p+1)->name,"Kim");
          free(p);
```